

긴급 글로벌 동향 및
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

2016.2.7.(일) 11:00
금융감독원 11층 대회의실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6. 2. 7.

금 융 위 원 회

1. 현황

☐ 아시다시피

오늘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였음

☐ 그간의 경험을 보면

금번 미사일 발사로 국내외 금융시장에
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

- 금년초 1월초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
예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
배제할 수 없음

2. 대응

☐ 금융당국이 중심을 확고히 잡고 차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☐ 먼저, 우리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음

- 채권시장, 주식시장, 외화자금과
역외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유출입 등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파급효과를
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음

- 특히, 설 연휴기간 중 **시장이 열리는 미국·유럽 등** 주요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,

- * 아시아 주요국 금융시장은 휴장

- 중국(7일~13일), 홍콩(8일~10일), 일본(11일), 베트남(8일~12일) 등

- 특히,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
중국 불안, 저유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과
결합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
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임

- 그리고, 기재부, 한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
정보공유를 강화하고,

- 글로벌 IB, 외신 등과도 hot-line을 구축하는 등
국내·국외 금융시장간 연관된 움직임에
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

- 이와함께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
기 마련된 **contingency plan**을
점검하고,

-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
신속·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음

- 우리나라는 '97년, '08년 위기를 겪으면서
꾸준히 우리 경제 전반의
기초체력과 대응여력을 강화해 왔음

- 대외건전성 측면에서, 세계 6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고, 단기외채 비중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

- 또한, 경상수지도 4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국내 은행들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

* 외환보유액('15.11월, 조\$) : (中)34 (日)1.2 (사우디)0.6 (스위스)0.6 (대만)0.4 (韓)0.4

** 韓 단기외채/외환보유액(%) : ('08말)74 (10)47 (12)39 (14)32 (15^o)30

-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, 정부부채 비중이 GDP대비 40%미만으로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

* 정부부채/GDP(% , '15^o) : (선진국)104.5 (신흥국)44.4 (韓)38.2

- 이에 따라 작년('15년), S&P와 Moody'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

* (S&P) 9.15일, A+ → AA- (Moody's) 12.18일, Aa3 → Aa2

* G20중 AA-(Aa2) 이상 국가 : (S&P) 8개 국가, (Moody's) 7개 국가

-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음

-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충분한 대응능력을 믿고 설 연휴 등 일상생활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